

시기를 비는마음懇切합니다.

III

鎮南館補修通信(其一)

崔 容 完

昨年十二月十五日着工以來修理工事は三月一日現在約四十八%の工程を 보이고 있다. 建物에 關하여 略述하면 平柱와 高柱 七十二柱로 柱心內 面積二百坪을 넘는 規模이다. 지붕은 팔각지붕으로 四隅에 추녀 아래를 갖추었다. 前面에 十五間의 建物內部에는 闕碑를 奉安하고 國慶 賀禮 國哀奉悼를 官民一同이 舉行하는 客舍로서 左 水營水兵舍로서 偉 風이 建物外觀에 넘친다.

李朝宣祖 때(三百六十六年前) 建立되었고 肅宗期에(三百四十九年前) 火災가 있었다고 郷土史에 전하는 바 今번 工事中에 막새瓦의 銘文에서 康熙五十六年의 修築記錄이 나타나 今년부터 二百四十八年前에 지금의 建物이 建立된 것으로 推測된다. 또 望瓦의 銘文에서 咸豐十一年의 記錄이 發見되어 今년부터 一百四十年前에 今번 修理가 있었고 建物の 南面 두 곳의 包와 西北隅包를 修理하였음을 推定할 수 있다. 平柱中에 四隅柱가 直徑二尺八寸內外로 가장 굵고 御間의 兩柱가 다른 平柱보다 二寸 쯤 더 굵은 直徑二尺五寸內外이다. 이들 柱上部에 龍頭가 前面을 向하여 彫刻되었다. 建物の 内部에서도 兩側층랑위로 넘어 내려오는 한쌍의 大龍이 있다.

今번 修理工事に 있어서는 建物の 東北部分의 기둥들과 西便에 파괴된 大椽을 新材로 교체하여 심한 곳은 약 一三도 이상 기울어졌던 軸部를 도잡이 하여 바로 세우고 解體工事時에 마루는 周椽部가 中央部보다 한 단 낮은 構造로 밝혀졌으므로 原形을 찾아 復元하여 우물마루로 놓고

지붕에는 數次의 修理工事を 通하여 결손된 蓋瓦를 補充하여 막새와 兩 斗樑를 갖추는 일이다. 또한 童子柱 數個所에 中間修理工事の 部分의 不合理한 構造變更部分을 原形으로 復元하여 建物の 壽命을 最大限으로 安全토록 하며 樣式을 손상치 않은 範圍內에서 力學的인 補強方法을 取하기로 하였다.

工事に 어려운 點은 建物の 規模가 크기 때문에 各部材는 規格이 크고 모든 木材는 材質에 따라 變形을 일으킨 點이다. 특히 기둥의 경우 아래는 自然石 大柱礎위에 그랭이질하여 柱下面을 自然石모양에 맞추어 彫刻하여 安置했으므로 材質에 따라 「뒤틀림」을 일으켜도 下端은 固定되고 上部에 包는 柱와 함께 회전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木造部材에 나타나고 있으나 진남관의 경우는 조금 심한 듯하다.

考古美術 一〇一

◎ 文化財 第一分委(二次)

二月二十七日午後. 出席委員 金岸基 金斗鍾 李相佰 金元龍 黃壽永 李弘植(委任)外 李應哲課長 李浩官氏 附委委員은 다음과 같다.

一、一九六四年度 業績報告

二、日本讀賣新聞社主催 韓國文化展……否決

三、石塔 石佛移轉

가、慶北 萊州郡 浮石面 北枝里 石塔二基와 奉化物野面 梧田里 石佛一軀를 浮石 寺境內로 移轉建立코자하는 申請……否決하고 旣移動된 石塔은 道敎育監 責任下에 原位置에 復元키로 함.

나、江原道 襄陽郡 隆峴面 屯田里(陳田寺址) 三層石塔 및 同郡西面(禪林院址) 石塔材들을 東草市 神興寺 境內에 移建申請……鄭永鎬 專門委員會 現地出 張케 하여 調査後 處理키로 한다.

四、景福宮內 建物建築(首都警備司令部申請)
五、石窟庵本尊白毫設置……否決